



갯벌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도시로의 '상전벽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출범 15년 만의 눈부신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INEZ)의 중심 도시 송도, 청라, 영종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올해 개청 15주년을 맞이했다.

INEZ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의 67%를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견인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 인천글로벌캠퍼스, 영종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이루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것이 FEZ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진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가 거둔 성과는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인천시민의 사랑과 격려, 관계 전문가의 지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해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개청 15주년의 소회를 밝혔다.

전국 FEZ FDI의 67% 차지...한국 경제발전 견인차

IFEZ가 거둔 성과는 외국기업이 FEZ에 얼마나 투자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올해 12억9천600만 달러(9월 말 기준)로 전국 FEZ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개청 이후 9월 말 기준 누적 FDI는 118억3천100만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바이오 & 교육 허브

IFEZ는 송도 457공구에 이미 조성한 91만㎡ 외에 송도 11공구 99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앵커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사이언스 파크 등을 연계해 송도 일대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등 5개교가 이미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문을 열었다.

추가로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 스마트시티 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협약



약바이오연구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가 속속 입주할 예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활성화, 세브란스병원의 조기 개원 및 사이언스 파크 조성, 학생 5천 명 추가 유치 등도 성과다.

세계가 인정하는 IFEZ 스마트시티 기술력

ICT(정보통신기술)가 융합된 IFEZ의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가 주목한다. 지난해 6월 송도에서 열린 '뉴시티 서밋'(New Cities Summit)은 IFEZ를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전 세계에 알렸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지로 수출하는 길도 활짝 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0~2014년 남미 에라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조성'과 관련해 교육·연구기관·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중심의 지식기반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종합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남미 콜롬비아 2개 신흥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수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했다.

필리핀 기지반환경(BCDA)과는 U-시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하노이·박린·괏린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도 맺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AMATA 그룹과의 동남아시아 지역 내 스마트시티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인도와 추진한 IFEZ 스마트시티 기술력 기반의 드론 환경 모니터링 구축 연구개발(R&D) 사업도 성과로 꼽힌다.

제3연륙교 등 굵직한 숙원 사업 해결

IFEZ의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잇달아 해결돼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주주사인 계열사와 (주)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기부채납과 개관이 지연되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문제가 IFEZ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NSIC의 대표자 변경을 계기로 마무리됐다.

최근 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행정적 절차인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돼 11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도 본격화됐다.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IFEZ는 실시설계용역 기간 단축과 신기술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애초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이던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도 2022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목표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시티타워역 설치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심도 통과안'으로 말끔히 해소됐다.

북합리조트 메카 '영종' vs 금융·유통 중심지 '청라'

작년 4월 1단계 1차 시설, 올해 9월 1단계 2차 시설을 오픈한 파라다이스시티는 2022년 완공된다.

시저스 코리아(2022년)와 인스파이어(2023년)가 추가로 완공되면 영종 지구는 우리나라 북합리조트 산업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의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세계 최상위 수준의 레저휴양지향형 북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무의솔레어 북합리조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유통·금융 중심지구로 도약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서구 경서동 2블록의 16만5천㎡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의 투자비가 애초 5천억원대에서 1조원대로 두 배로 늘어난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쇼핑몰 개념에서 테마파크, 호텔 등을 갖추고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신개념 쇼핑몰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그룹 전체의 금융 연관 기능 집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나금융타운도 내년 하반기에 막바지 3단계 본사금융지원 센터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IFEZ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⑦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